

국립국어연구원 소식

1. 외래어 표기 용례집 (북구권 지명·인명) 발간

국립국어연구원은 북구권의 지명, 인명을 한글로 표기하여 수록한 외래어 표기 용례집 (북구권 지명·인명)을 6월 10일자로 발간하였다. 이 용례집은 지난 3월 16일에 고시된 스웨덴 어, 노르웨이 어, 덴마크 어 등 북구권 3언어의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여 편찬한 것이다.

이번에 간행된 용례집에는 북구권 국가 중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3개국의 지명과 인명 약 1,200여 개를 수록하였다. 용례집의 한글 표기는 원칙적으로 지난 3월 16일에 고시된 북구권 언어 표기법에 따랐지만 표기법을 적용했을 때의 어형과 다르게 굳어진 일부 용례에 대해서는 굳어진 관용을 인정하였다. 즉 덴마크의 동화 작가 ‘안데르센(Andersen)’의 경우 표기법에 따르면 ‘아네르센’이지만 이미 ‘안데르센’으로 확고히 굳어졌다고 보아 ‘안데르센’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로 써 왔던 덴마크의 철학자의 표기는 표기법을 좇아 ‘키르케고르’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명의 경우에도 그 동안 써 오던 표기와 달라진 것들이 있다. 스웨덴의 지명 가운데 ‘Jönköping, Falköping, Linköping, Norrköping, Niköping’ 등은 ‘이원최핑’, ‘팔최핑’, ‘린최핑’, ‘노르최핑’, ‘니최핑’에서 ‘엔세핑’, ‘팔세핑’, ‘린세핑’, ‘노르세핑’, ‘니세핑’으로 바뀌었으며 Rossby는 ‘로스비’에서 ‘로스뷔’로, Lydberg는 ‘리드베리’에서 ‘뤼드베리’로, Nässjö는 ‘네시외’에서 ‘네세’로 바뀌었다.

이번에 북구권의 지명, 인명을 수록한 외래어 표기 용례집을 발간함으로써 교과서 표기와 언론 보도에서는 물론 지도 제작, 백과사전 편찬에 있어서도 북

구권의 지명, 인명을 원지음에 가까우면서도 일관되게 한글로 표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용례집에 수록되지 않은 인명, 지명을 표기할 때에도 고시된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해서 원지음에 가깝게 한글로 표기할 수 있도록 이번에 발간된 용례집에는 세 언어의 외래어 표기법 전문을 수록하였다.

2.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공동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새로 들어오는 외래어의 표기를 통일하기 위해 정부와 언론이 공동으로 구성한 정부·언론 외래어 심의공동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공식 중인 공동위원장에 송민 국립국어연구원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 정복수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보도용어 통일 심의위원장을 선출하였다. 새로 구성된 공동위원회의 인원은 다음과 같다.

정부측 대표

송민(위원장, 국립국어연구원장), 강신항(위원, 성균관대학교 교수), 남기심(위원, 연세대학교 교수), 배상식(위원, 교육부 교육연구관), 정기영(위원, 문화체육부 문화정책국장), 서종학(위원, 영남대학교 교수, 국립국어연구원 어문규범연구부장), 김세중(연구위원, 국립국어연구원 학예연구관)

언론계 대표

정복수(부위원장, 한국신문편집인협회 보도용어통일심의위원장), 김상준(위원, KBS 아나운서실차장), 김충수(위원, 조선일보 교열부장 대우), 오남열(위원, MBC 보도국 라디오뉴스팀 국장), 조덕일(위원, 동아일보 교열부장), 이운표(연구위원, 문화일보 편집위원), 이상근(사무간사,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사무국장)

이 날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한국신문편집인협회 자체의 보도용어 심의안을 심의하였는데 편집인협회의 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다만 '에끼스', '엑기스'로 쓰이고 있는 말에 대해서는 '진액'으로 순화해서 쓰기로 하였다. 이번 심의에서는 최근 들어 심각하게 표기의 혼란을 보였던 외래어들의 한글 표기가 정해졌는데 주요한 예는 다음과 같다.

실태	원어	결정된 표기	비고
인터넷, 인터네트	Internet	인터넷	국제 정보 통신망
옴, 오옴, 오우무	Aum	옴	진리교(일본)
강리치, 킹그리치	Gingrich	강리치	미국 하원의장

이 날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또 긴급을 요하는 외래어 표기 문제에 대한 사전 조정을 위하여 외래어 문의 창구(전화: 732-1726, 779-8734)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3. 국어문화학교 제15기, 제16기 강좌 개최

우리 연구원은 국어문화학교 제15기 국어반(특별반), 제16기 번역반 강좌를 덕수궁내 궁중유물전시관 강당에서 마쳤다.

제15기 국어반(특별반)은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출판인 및 일반인 49명을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범과 시, 소설, 화법 등 교양인이면 갖추어야 할 내용을 그 분야의 관련 학자들이 강의하였고, 제16기 번역반에서는 전문 번역인 및 일반인 50명을 대상으로 이중 번역의 문제, 번역 문학의 실상, 해석과 번역 등 외국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을 그 분야의 관련 학자들이 강의하였다.

지난 '92년에 개설한 국어문화학교는 그 동안 각계 각층을 대상으로 어문 규범, 언어 예절 등에 관심을 갖게 하고 바르고 품위 있는 국어 사용에 도움을 주고자 힘써 왔다.

제15기 국어반(특별반), 제16기 번역반의 강의 내용과 강사는 다음과 같다.

〈제15기 국어반〉

- 잘못 쓰이는 표현의 유형과 배경 : 송 민 (국립국어연구원장)
- 국어 생활과 표준어 발음 : 유만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 외래어 표기와 국어의 로마자 표기 : 이광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 실용 맞춤법과 간추린 표준어 : 이승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전문)
- 국어와 소설 : 박범신 (작가, 명지대학교 교수)
- 국어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 최규일 (제주대학교 교수, 어문실태연구부장)

- 국어와 시 : 설의웅 (시인, 어문자료연구부장)
-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 강인선 (학예연구관)
- 국어 예절과 화법 : 전수태 (학예연구관)

〈제16기 번역반〉

- 번역과 국어 : 임홍빈 (서울대학교 교수)
- 번역과 오역 : 장귀남 (한양대학교 교수)
- 번역 문학의 실상 : 안인희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해석과 번역 : 원영희 (가이드포스트 편집장)
- 번역의 실제 : 김정우 (경남대학교 교수)
- 번역과 한글 맞춤법 : 김희진 (학예연구관)

한편, 제17기 국어반(청소년반)은 7월 26일~7월 28일, 제18기 국어반(특별반)은 9월 28일~9월 30일, 제19기 국어반(일반반)은 11월 22일~11월 24일 열릴 예정이다. (문의 전화 : 779-4818)

4. 『종합국어대사전』(가칭) 편찬 사업 홍보를 위한 언론·방송 기자 간담회 개최

1. 일 시 : 1995.5.25. 11:00~
2. 참석자 : 5개 언론사(서울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연합뉴스 등) 출입 기자
송민(국립국어연구원장), 서중학(영남대학교 교수, 어문규범연구부장), 최규일(제주대학교 교수, 어문실태연구부장), 박연근(서무과장), 강인선(학예연구관)
3. 간담회 내용 : 『종합국어대사전』(가칭) 편찬 사업 현황 설명

5. 1995년도 상반기 월례발표회

국립국어연구원은 원내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달 첫째 토요일에 회의실에서 연구 발표회를 가져 왔다. 1995년도 상반기에 발표된 주제와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 1월 정희원(어문실태연구부) 국어 사전에서의 관용구 처리에 관하여
2월 최규일(어문실태연구부) 일본식 말 글 우리식으로 바로잡자
박용찬(어문자료연구부) 훈민정음의 중성 체계에 관하여
3월 유승국(사전편찬실) 사전에서의 전문어 처리 방안에 대하여
4월 이준석(사전편찬실) 조선 초기 佛說阿彌陀經付觀音禮文의 口訣에
대하여
5월 김희진(어문규범연구부) 부사화 접미사 '-이'와 '-히'에 관하여
6월 이현우(어문자료연구부) 의문사 '무엇'에 대하여

6. 연구원 인사 이동

김규직 : 국립국어연구원 서무과 → 문화체육부 총무과('95년 6월 1일자)

김동만 : 국립중앙도서관 서지표준과 → 국립국어연구원 서무과('95년 6월 1일자)